



보도 일시	배포시	배포 일시	2022.12.20.(화)	
담당 부서	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	책임자	과 장 <sup>代</sup>	정현직 (02-2100-2810)
		담당자	사무관	송용석 (02-2100-2805)

## 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

국민체감도 및 외부전문가 평가를 거쳐, 6개 우수사례 담당 6명에 표창

### 1 '22 하반기 적극행정 시상식

□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'22.12.20.(화) 금융위 북카페에서 「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」을 시상하였습니다.

□ 이번 우수공무원 선정은 내·외부 공모로 13개 사례를 접수하였으며, '적극행정 모니터링단'\* 및 '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' 평가\*\*를 거쳐

\* 적극행정 관련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일반국민, 금융위 서포터즈 20명 위촉

\*\* 민간위원 5인

○ 12.15.(목) 「제4차 적극행정위원회」\*(위원장 :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) 의결을 통해 6개 사례 담당공무원 6명을 확정하였습니다.

\* 참석위원 : (정부) 김소영 부위원장 및 국장급 3명, (민간) 이상철(부산대 공공정책학부), 주승희(덕성여대 법학과), 이동진(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), 최문섭(이화여대 경영학부), 이효섭(자본시장연구원)

□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우수공무원 6명에게 상장을 직접 수여하였으며, 향후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.

## 2 수상사례 주요 내용

- 이번에 선정된 6개 사례(우수3, 장려3)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먼저 우수 사례는
  -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전 금융업권간 대환대출이 가능한 「온라인·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」 구축 방안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.
  - 그리고 온라인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에도 합리적으로 상품 설명을 하도록 「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」을 마련한 사례와
  -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피해를 본 자영업자·소상공인을 위한 만기연장·상환유예 조치 연장도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.

### < 우수 사례(3건) >

- ① “현명한 금융소비자는 저금리로 갈아탄다, 스마트폰으로 한 번에 가능한 대환대출 시대”  
(「온라인·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」 구축) ([중소금융과](#))
- ② 온라인으로 금융상품 가입시,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효과적인 금융상품 설명방안 마련  
(「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」 마련) ([금융소비자정책과](#))
- ③ “충분한 여유기간을 갖고 정상영업 회복 전념” 만기연장·상환유예 조치 연장으로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의 근본적 상환능력을 회복한다  
(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통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 해소 지원) ([금융정책과](#))

## □ 장려 사례에는

- 정책금융기관이 회사채·CP 매입을 추진하여 자금조달에 곤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한 「정책금융기관의 회사채·단기자금시장 안정화 방안」 과
-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, 소상공인 등 취약 차주에게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실시 사례
- 금융위원회와 경찰청 등 관계 부처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범부처 보이스피싱 대책을 선정하였습니다.

### < 장려 사례(3건) >

- ① 고금리 시대, 저신용 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다  
(「정책금융기관의 회사채·단기자금시장 안정화 방안」) (산업금융과)
- ② “우리 동네 상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” 새출발기금으로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·소상공인 부실(우려)차주의 상환부담을 완화한다  
(새출발기금 통해 만기연장·상환유예 및 원리금 감면 지원) (금융지원과)
- ③ 민생을 침해하는 보이스피싱, 끝까지 막는다  
(범부처 보이스피싱 대책 마련) (민생침해금융범죄대응반)

## 3 금융위원장 격려 말씀

-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“ 대환·대출 인프라 구축 방안부터 보이스피싱 대책까지 상반기에 비해 다양한 사례들이 선정되었다”고 격려하면서
- “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국민 생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맡은 업무들을 잘 챙겨주길 바란다”고 밝혔습니다.

사례	주요 내용
<p>「온라인·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」 구축 (박준상 사무관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b>(내용)</b> 전금융업권(은행, 저축은행, 여전사) 간 신용대출* 온라인 대환대출 이동시스템 구축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마이너스 통장, 카드로 등 모든 유형의 신용대출, 전체 신용대출 시장의 90% 이상</li> <li>- 금융결제원 망을 통해 기존대출 상환 요청, 필요정보** 제공, 최종 상환 확인 등 대환대출 절차를 완전히 전산화</li> <li>** 상환필요금액(원리금 잔액, 수수료 등 기타비용), 상환계좌, 대출약정금액 등</li> </ul> </li> <li>○ <b>(성과)</b> '23년 5월(잠정) 가동을 목표로 대환대출 이동시스템 구축 착수('22.11월 현재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금융권과 핀테크 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조율,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50여개 주요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대출이동 시스템 구축 시작</li> </ul> </li> <li>○ <b>(적극행정)</b> ①업권별, 업권 간 다수 회의와 상시적인 협의로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율 ②기존 플랫폼 사례 등을 적극 참고하여 금융회사 건전성 리스크 관리체계 마련</li> </ul>
<p>우 수 「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」 마련 (김민수 사무관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b>(내용)</b> 온라인 판매과정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에 적합한 금융상품 설명방안을 마련</li> <li>○ <b>(성과)</b> 온라인 판매현장에서 금융상품 설명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3개 분야, 7개 원칙으로 구성된 「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」을 마련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요 은행 등은 이르면 '23년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 반영 예정</li> </ul> </li> <li>○ <b>(적극행정)</b> '설명의무 상시개선 협의체'를 조직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의견 조율 및 정기적인 소통창구로 운영, '실무추진단'을 구성하여 이행 준비와 관련된 어려움 및 건의사항 청취하고 기존 업무관행의 변화 유도</li> </ul>
<p>만기연장·상환유예 조치 연장 (송현지 서기관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b>(내용)</b> ①일괄 만기연장을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전환하여 최대 3년간 만기연장 추가지원 ②최대 1년간 상환유예 추가지원 및 상환유예 종료 후 상환계획 마련을 위한 1:1 상담 지원 ③만기연장·상환유예 비희망 차주에 대해 새출발기금 및 신속금융지원(Fast-Track)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 지원</li> <li>○ <b>(성과)</b> 11.28일 기준(8주차), 은행권 만기연장·상환유예 지원 여신은 약 12.6조 원, 매주 평균 1.5조 원 추가 여신 지원하여 성공적 운영</li> <li>○ <b>(적극행정)</b> ①채무조정, 정상상환 개시 등 만기연장·상환유예 관련 은행권 총 지원현황 실적 모니터링 ②상환유예 여신에 대해서 1:1 상담을 통한 차주의 상환계획 수립 지원 ③업계 간담회 및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통한 지속적인 연착륙 지원방안 모색</li> </ul>

	사례	주요 내용
	<p>「정책금융기관의 회사채 단기자금 시장 안정화 방안」 (김준수 사무관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b>(내용)</b> ①회사채 및 CP 시장에서 산은, 기은,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비우량물 발행 지원 확대 추진, ②채권시장안정펀드를 통해 회사채·CP 매입을 추진하여 시중금리의 변동성 완화 및 안전판 마련, ③단기 자금시장의 취약한 연결고리 중 하나인 PF-ABCP, CP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정책지원방안 마련</li> <li>○ <b>(성과)</b> ①회사채·CP 매입기간 연장 ('22.9월말 → '23.3월말), ②회사채·CP 매입 프로그램 통합 및 매입목표치 상향, ③기재부 등과 함께 범정부 차원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공공기관의 채권발행 분산을 추진, ④'PF-ABCP에 대해 「Two-track」의 매입지원 프로그램 운영, ⑤증권사 발행 CP 지원을 위해, 산업은행의 증권사 발행 CP 매입 프로그램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(10영업일 → 5영업일)</li> <li>○ <b>(적극행정)</b> 금융지원 방안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와 공동으로 간담회를 추진하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</li> </ul>
장 려	<p>새출발기금 (윤혜원 사무관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b>(내용)</b> ①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, 법인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30조원 규모의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 ②상환일정 조정, 금리감면을 지원하고, 장기연체된 부실차주에 대해 원금감면(60~80%) 추가지원</li> <li>○ <b>(성과)</b> 관계기관 협의 및 업권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전산시스템 구축, 협약서 마련 → 10.4일 새출발기금 출범 및 채무조정 접수 본격 개시* * 신청 초기 혼잡 등에 대비하여 온라인 플랫폼 사전신청 접수(9.27~9.30일) ** 11.30일 기준, 새출발기금 신청자수는 11,761명, 신청채무액은 약 1.7조원 수준</li> <li>○ <b>(적극행정)</b> 새출발기금의 원활한 조기안착을 위해 현장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를 정비 ①「현장소통반」 및 「찾아가는 설명회」 운영 →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제도 이해도 제고 ②매주 관계기관 협의체 점검회의를 통한 운영현황 공유 및 개선사항 논의</li> </ul>
	<p>범부처 보이스피싱 대책 마련 (허성 사무관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b>(내용)</b> 보이스피싱 발생 단계별로 취약점을 분석해 범부처적으로 대응 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본인확인 대폭 강화 ②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도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추진</li> <li>○ <b>(성과)</b> 범부처 공동 보이스피싱 대책 발표(9.29일),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구제 절차 진행을 위한 법률개정안 의원입법 발의(10.21일 윤한홍 의원)</li> <li>○ <b>(적극행정)</b> 관계 부처 및 금융권을 지속적으로 설득 ① 과기부와 방통위는 대포폰 가입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대포폰의 대대적 단속 약속 ②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해 법무부, 경찰청, 금융회사간 여러 차례 공동 회의를 통해 방안*을 마련 * 경찰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범인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피해금을 특정해 주면 금융회사가 피해금 환급절차를 진행</li> </ul>

